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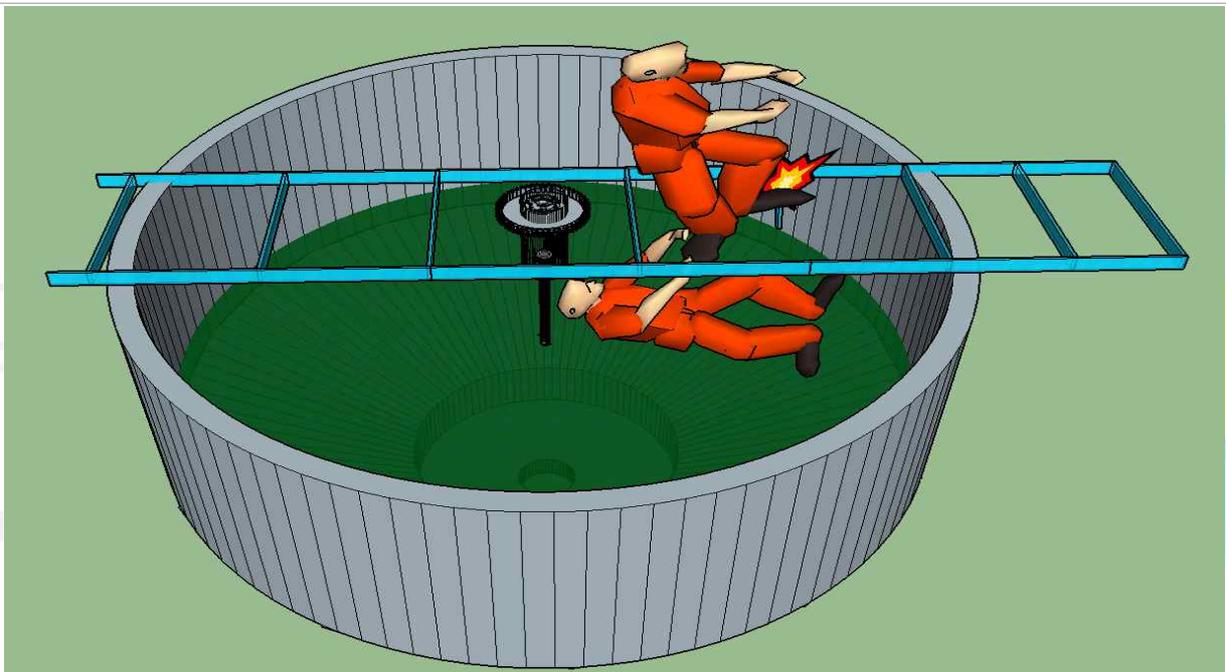
중대재해 사례(2019.07.15. KOSHA-경기서부-SA-201906)

본 속보는 경기서부지사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. 금번 발생한 사고는 원인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재해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법적 사항 등과는 무관하며, 사례전파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배부하오니 안전 교육 등에 참조하여 동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앵글파손으로 인한 추락 후 고온의 폐수에 의한 화상

< 사고개요 >

2019년 7월 13일(토) 09:20경 경기도 안산시 소재 ○○사업장내 폐수처리장 농축조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가 부식된 작업발판의 지지대(앵글)를 밟아 농축조 내부로 추락하여 고온의 폐수에 의해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



사진

재해발생상황

1 사고발생과정

○ 재해발생 작업 진행순서도



- 워크웨이 난간 및 상부덮개 제거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앵글의 지지대를 해체후에 이동을 하던 도중 지지대가 파손되어 농축조 내부로 추락한 재해가 발생함.

중대재해 사례(2019.07.15. KOSHA-경기서부-SA-201906)

<기인물 : 앵글>



- 길 이 : 3.9m
- 넓 이 : 0.8m
- 디 딤 대 폭 : 50mm
- 디 딤 대 두께 : 50mm
- 재 질 명 : SS275

2 사고발생원인

- 작업시작전 안전점검 실시 미흡
 - 워크웨이(구조물)가 부식 및 변형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작업 실시
- 안전대 미착용
 -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착용없이 작업실시

3 동종사고 예방대책

- 작업발판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
 -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, 안전대를 착용하게 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
-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
 - 추락 및 화상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및 작업 전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

4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

- 사업주가 해야 할 일
 - 근로자가 추락하거나,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,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게 조치
 -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도록 조치
- 근로자가 해야 할 일
 - 작업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발견시 작업시작 금지
 - 추락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, 안전모, 방열복 등의 보호구 착용